日韓伝統医学の潮流

座長：金 成俊

1. 韓国韓医学の潮流

金 璋顯

2. 漢方医学の潮流

石野 尚吾

Current of Traditional Medicine in Japan and Korea

Chairperson : Sung-Joon KIM

1. Current of Korean Oriental Medicine

Jang-Hyun KIM

2. Current of Kampo Medicine

Shogo ISHINO

Abstract

The Japan Society for Oriental Medicine, and The Korean Oriental Medical Society, organizations representing traditional medicine in both countries, concluded a convention of scientific exchange and held a formal signing ceremony on March 29, 2009. Taking this opportunity, the presidents of both societies gave commemorative lectures on behalf of their organizations.

1) Korean president Kim spoke of an original medical tradition differing from that in China, having existed before the time of Christ. He raised *yomogi* and garlic as examples of herbs not described in Shennong's *Classic of Materia Medica*. He told how traditional medicine exchange was already active between China, Korea and Japan, during China's Three Kingdoms period, and how after the *Treasured Mirror of Eastern Medicine* was published, traditional Korean medicine took root with the common people, and the concept of Four Constitution Medicine was created. Kim then spoke of how western medicine was introduced in 1876, and how a dual medical system has since developed in his country.

2) President Ishino told of how Kampo medicine originated from China, and how in particular, it was Japanized during the Edo period. He spoke of how its characteristic feature is a focus on "practice" rather than "theory", which eliminates idealism, places more emphasis on positivism, and has led to the development of *fukushin*, or abdominal diagnosis. He explained the history of Kampo medicine in great detail, and spoke of how after the medical system was reformed in the Meiji era, Japanese medicine became western based. He then explained how after entering the Showa era, Kampo medicine was revived, and is now well-established and integrated with western medicine.

Key words : traditional medicine, Korean oriental medicine, Kampo medicine

和文要旨

(社)日本東洋医学会と大韓韓医学会は、日韓両国の伝統医学を代表する機関として、2009年3月29日に日韓学術交流協定を締結させ、調印式を行った。それを契機に両学会を代表して、両会長が記念講演を行った。

金会長：中国とは異なる独自の伝統医学が紀元前から存在し、例として神農本草經に記載のないヨモギとニンニクを挙げた。中国の三国時代では日・中・韓の医学交流が広範囲に行われた。東医宝鑑の刊行後、韓医学は民衆に根付き、四象医学も生み出され、1876年以降西洋医学の流入により、二元的医療体系が成立し、現在に至っている。

石野会長：漢方医学は古代中国に源を発するが、特に江戸時代に日本化された医学である。特徴は学より術を重視し、観念的な議論を廃し、実証主義的な立場を主張、腹診法などを発展させた。明治の医療制度改革で西洋医学中心となったのが、昭和になり復活し、西洋医学体系における医療の中で漢方医学を確立するまでの歴史的な概略を述べた。

キーワード：伝統医学、韓医学、漢方医学

韓国語要旨

日本東洋医学会와, 大韓韓医学会는, 韓日両国 의, 伝統医学을, 代表하는, 機関으로서, 2009年3月 에 韓日学

術交流協定을締結시키고調印式을가졌다. 그것을契機로兩學會를代表해서,兩會長이記念講演을했다.

金璋顯會長：中國과는구별되는독자적인전통의학이紀元前부터존재했으며,그예로서“신농본초경”에는존재하지않는쑥과마늘을제시했다.中國의三國時代에는日·中·韓의醫學交流가廣範圍하게행해졌다.東醫寶鑑刊行後韓醫學은民衆의학으로서인정받아,四象醫學도정립되었다.1876年以後西洋醫學의流入에의하여二元的醫療體系가成立하고,現在도二元的醫療體系를가지고있다.

石野尚吾會長：漢方醫學은古代中國에근원을두고,특히江戶時代때日本화된醫學體系이다.特徵은學보다術을重視하며,觀念적인議論을폐쇄하고,實証主義적인立場을主張,腹診法 등을發展시켰다.明治의醫療制度改革으로西洋醫學中心이되었다가昭和가되어復活하며,西洋醫學體系의醫療속에서漢方醫學의確立이되는歴史的인概略을논했다.

金成俊 本日最後のシンポジウムであります「日韓伝統医学の潮流」を始めさせていただきます。配布した資料を見ていただきますと、日本東洋医学会と大韓韓医学会の交流の経緯が書かれています。日本東洋医学会と大韓韓医学会は2002年7月頃より交流が行われており、特に2008年2月には大韓韓医学会金璋顯會長一行が日本東洋医学会を表敬訪問し、また2009年11月には大韓韓医学会の學術總會に日本東洋医学会から石野會長一行が参加しております。このような相互交流の結果、両国の伝統医学を代表する機関として、2009年3月に、日本東洋医学会と大韓韓医学会の學術交流が締結されました(図1)。このような経緯を踏まえ、特別企画として本シンポジウムが開催されることになりました。そこで、日本と韓国の伝統医学をより深く相互理解いただくために、シンポジウムのタイトルを「日韓伝統医学の潮流」としました。

それでは最初は大韓韓医学会を代表して、金璋顯會長よりしく願いいたします。

오늘 마지막 심포지엄인 「한일 전통 의학의 조류」를 시작하겠습니다. 배포한 자료를 보시면 대한한 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의 교류경위를 알 수 있습니다. 대한한 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의 교류는 2002년 7월경 교류가 시작하며, 특히 2008년 2월에는 대한한 의학회 김장현 회장 일행이 일본동양의학회를 방문하며 또한 2009년 11월에는 대한한 의학회 학술총회에 일본동양의학회 이시노 회장 일행이 참가했습니다. 이러한 상호교류의 결과, 양국의 전통의학 대표기관으로서 2009년 3월에 대한한 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는 학술교류를 체결했습니다(圖 1). 이러한 경위로 오늘 심포지엄을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의학을 상호 이해하기 위하여 심포지엄 제목을 「한일 전통 의학

의 조류」로 했습니다. 그럼 먼저 대한한 의학회를 대표해서 김장현 회장님 부탁드립니다.

(社)日本東洋医学会・大韓韓医学会学術交流調印式報告書

渉外担当理事 崎山武志

渉外委員長 金 成俊

2009年3月29日(日)に日本東洋医学会事務局にて、(社)日本東洋医学会・大韓韓医学会学術交流調印式が行われた。日本東洋医学会からは石野尚吾会長、花輪壽彦副会長、米田誠典副会長、石川友章常務理事を始め、多くの理事が参席し、また大韓韓医学会からは金 璋顯 会長、李 哲 浚副会長、林ヨン鎬企画総務理事、金相佑学術理事が参加した。

崎山渉外担当理事の司会により、式典が執り行われた。開会の辞の後、両学会のこれまでの交流経緯が説明された。

<(社)日本東洋医学会と大韓韓医学会との交流経緯>

2002年7月：大韓韓医学会・李源哲先生及び国際担当理事・曹基湖先生より交流を語りたいとの書翰を貰う。

2002年9月：日本東洋医学会理事会において大韓韓医学会との交流を始める旨了承し、学術雑誌の交換など交流を開始した。

2008年2月：大韓韓医学会・金璋顯会長以下4名日本東洋医学会を来訪。両国の伝統医学の現状などを話し合い、交流を深める。

2008年11月：日本東洋医学会石野尚吾会長、崎山武志渉外担当理事及び金成俊委員長の3名が大韓韓医学会学術総会(ソウル)に出席。

以上の経緯を踏まえ、今回の学術協定が実現した。

両学会代表として、石野尚吾日本東洋医学会会長及び金璋顯大韓韓医学会会長が学術交流協定書の内容について朗読により最終確認を行い、調印を行った。調印式終了後両学会会長より、今後さらなる発展を期待したいとの挨拶があり、また両学会は毎年交互に学術交流を実施することが発表された。今回の調印式を記念し、第60回日本東洋医学会学術総会において特別企画「日韓伝統医学の潮流」が予定されている。

<学術交流協定書>

調印後握手を交わす石野尚吾会長(右)と金璋顯会長(左)

両学会代表役員及び日本東洋医学会理事・役員

図1 大韓韓医学会と社団法人日本東洋医学会 交流の経緯(会報平成21年5月号)

韓国韓医学の潮流

金 璋顯

大韓韓医学会会長

みなさんこんにちは。韓国の伝統医学である韓医学を紹介させていただきます。現在の韓国医療は、古代から韓国人の健康を担っている韓医学と、近年西洋と日本により導入された西洋医学の両医学により構成されている二元的医療体系です。韓医学は、西洋文明の導入以降、数回にわたり存続の危機に直面したときもありましたが、韓医学の高い治療効果と国民の伝統医療に対する愛好心、選好度、そして多くの先駆者たちの努力などにより、このような難局を克服し、現在韓医学は継続的な発展を遂げております（図1）。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소개하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의 한의학 또는 한국의 의학은, 한국인의 건강을 고대로부터 지켜 온 한의학과, 개항 이후에 서양과 일본에서 도입된 현대의학이 같이 공존하고 있는 양대 의학으로서, 이원적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의학은 개항 이후에 여러 차례 존폐의 위기를 겪었는데, 한의학의 높은 치료 효과와 그에 따른 국민의 전통의료에 대한 애호, 선호도, 그리고 선각자들의 많은 노력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현재의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하고 있습니다（図1）。

伝統医学の歴史的な背景を見てみますと、韓国人の手により打ち立てられた紀元前の最初の古代国家は「古朝鮮時代」と呼ばれています。このことは、B.C.2333年の記録とされる“檀君神話”を通じて知ることができます。この国家では、初期には疾病をシャーマンである巫医たちが治療したとされており、また薬物と禁忌に対する医学的概念も存在していたとされています。特にこの神話に記されているヨモギとニンニクは、中国秦漢時代の『神農本草経』には記載されておらず、魏晋時代の『名医別録』から記載されており、このことは、中国とは異なる独自の伝統医学が韓国において存在していたことを示しています（図2）。

図1

図2

한의학의 역사는 고조선 시대부터 볼 수 있습니다. 고조선은 우리 한국인의 손에 의해서 세워진 최초의 국가인데, BC 2333 년의 기록인 “단군신화”에 쑥과 마늘의 존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무술 의학, 무의와 주술, 주술과 의학의 차이점은 의학적인 이론이 있느냐 없느냐라고 나눠 볼 수 있는데, 여하튼 신화의 기록을 보면, 당시 중국의 진한시대에 만들어진 “신농본초경”에는 쑥과 마늘이 존재하지 않는데, 위진시대에 만들어진 “명 의별록”에 쑥과 마늘이 나옵니다. 이것으로 볼 때 한국과 중국이 서로 구별되는 독자적인 의학으로 존재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図2）。

高句麗, 百濟, 新羅の三国が覇権を争った紀元前1世紀ころから, 紀元後7世紀までの三国時代の医学では, 日本や中国との医学交流が広範囲に行われていた点を, まず述べる必要があります。この時期に中国で刊行された本草書籍には, 韓国産人參, 細辛, 五味子, 款冬花, 昆布などは韓国産が優れていると記されています。そして, 『日本書紀』の記録では, 韓国では高句麗平原王3年頃, 561年頃の年ですが, 中国呉国の人知聰が内外典, 薬書, 明堂図

圖 3

など164卷を持参して、高句麗を経由し日本に帰化したと記録されています。また『日本書紀』には、高句麗の侍医、百済の医博士、採薬師、呪術師などの官職を備えた医師たちが、日本を訪問したとする記録も認められます。さらに日本の医書『医心方』には百済と新羅に関する医学の記録が多く記されています(圖3)。

삼국시대에,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이 서로 다투던 기원전 1세기 경부터 기원후 7세기 경까지, 그때의 의학자료는 사실 별로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일본, 중국과의 의학적 교류가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졌다는 점을 알 수 있고, 이 시기에 중국에서 간행된 여러가지 서적 중에서 한국산 인삼이나 세신, 오미자, 관동하, 곰포,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질이 좋다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특히 “일본서기”, 우리 한국에서는 고구려 평원왕 3년 정도, 561년 정도가 되는 해인데, 중국 강남에 오나라 사람 지충이 내외전, 의서, 명당도와 같은 서적 164권을 가지고, 고구려를 거쳐서 일본에 귀화했다는 내용이 있고, “일본서기” 중에 “의심방”에 백제와 신라의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圖3).

918年に起こった高麗時代には、医師選抜のための科擧制度が実施され、医学の発展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ました。この時期に台頭した“郷藥”論は、韓国産藥劑を用いて韓国人の疾病を治療するといった理念です。『郷藥救急方』、『三和子郷藥方』、『郷藥古方』、『郷藥簡易方』など、当時出版された医書の題名に付与された“郷藥”という名称からも理解できます(圖4)。

이어지는 고려시대에는 이전에 체계화된 의료제

圖 4

도들이 점차 자리를 잡아 가면서, 의사 선발을 위한 과거제도가 시행되고, 특히 이 시기에는 향약이라는 향약론이 대두되면서, 한국산 그 지방에서 나는 약재로 치료하면 상당히 효과가 있다라는 것이 이론상으로 많이 발전되었고, 향약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향약구급방”, “삼화자 향약방”, “향약고방”, “향약간이방”과 같은 의서들이 많이 발간된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圖4).

1392年からの朝鮮時代には、韓医学のかんりの発展が見られます。朝鮮時代は前期と後期に分けられます。1392年から始まり日本との7年戦争が終わった年の1598年までを朝鮮前期とします。朝鮮時代の前期は自主的な郷藥政策、中国からの医学輸入および書籍刊行、ハングル版医書の刊行などを特徴としています。特に、当時東アジアに存在する医学書籍などを整理した『医方類聚』が編纂されました。『医方類聚』は、現存する医書に限らず、失われた多くの医書が含まれている点において学術史的価値が大きい著作といえます。また、本書は朝鮮前期までの医学の学術的成果である本書から、皆さんもよくご存じの『東医宝鑑』に結実されていきます(圖5)。

이후 조선시대에는 한의학의 상당한 발전을 볼 수 있는데, 특히 조선시대는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전기는 1392년경부터 소위 조선과 일본이 전쟁을 치른 시기, 일본과 7년 동안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그것이 끝나는 해까지를 전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전기에는 보다 자주적인 향약정책들이 이루어져, “세종지리지” 등을 만들면서 향약의 분포실태 조사를 해 왔었고, “향약채취월령”과 “향약집성방” 등이 간행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동아시아에 존재하고 있는 의학서적들을 정리한 “의방유취”는 그 당시로

圖 5

圖 6

圖 7

圖 8

서는 아주 과격적인 자료의 정리라고 볼 수 있고, 지금 “의방유취”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는, 지금 현존하지 않는 자료들이 많이 수재되어 있다는 그 점에 있고, 또한 조선전기까지 학술적으로 이루어진 성과가, 나중에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신 “동의보감”에 결실되어 나타납니다 (圖 5).

『東醫寶鑑』は許浚が14年間の努力の末に1610年に完成した総合医書です。本書は処方数約3800首を備えた広範囲な医書でありながら、よく整理された医学書です。『東醫寶鑑』は、内景, 外形, 雜病, 湯液, 鍼灸など五篇により構成されています。二十数回も中国や日本などで刊行され, 多くの『東醫寶鑑』の亜流書籍が出版されました。この書籍により, 韓医学は民衆に深く根付いた医学として認められました (圖 6)。

특히 “동의보감”은 허준이 14년간의 노력 끝에 1610년에 만들어진 종합의서입니다. 당시 처방수만 해도 3800개 정도를 가지고 있는 아주 광범위한, 아주 정리가 잘 된 서적으로서, 이후 20여차례 중국과 일본 등지에서 간행되었고, 또 그 이후에 “동의보감”의 아류 서적으로서 침구학, 소

아과, 부인과 등과 관련된 서적들이 많이 출판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민중의학으로서 자리잡은, 특히 전염병에 관한 내용들이 많이 수재되면서 한의학 자체가 민중의학으로서 뿌리 깊숙히 민중들까지 영향을 끼치는 그러한 힘이 되었습니다 (圖 6).

1876年に日本との条約により外国との開港が実施された以降, 西洋医学の流入により, 韓国では二元的医療体系が成立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以降, 西洋医学が医療の中心になり, 1899年韓医学教育が官制により廃棄され, ついに1907年, 韓方診療までも政府により廃棄されました。特に1913年, 「医生規則」が公布されると, 韓医師は医師よりも身分の低い医生という制度に含ま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しかし, 韓医学界はこの時期, 西洋医学中心の医療政策に対応して, 韓医学教育機関の設立, 韓医学団体の設立, 振興大会の開催, 学術誌の発刊など, 韓医学の学術を存続させるための努力が行われました (圖 7)。

일본과 조선이 병자수호조약을 체결하는 개항 이후에 서양의학이 진입되고 나서, 사실은 한의학

図 9

이 침체되는 그런 기간이 시작됩니다. 한의학교육과 한방진료가 관제로서 폐기되었고, 한의학면에서는 여러가지 위기가 일어난 시기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한의학계에서는 거기에 대항해서 한의학 교육기관의 설립이나 한의단체가 설립되고, 또 한의학 진흥대회를 개최하고, 학술지들을 발간하는 등의 노력이 시작된 시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圖7).

また、この時期には韓国独自の四象医学が生み出され、現在も韓医学界に大きな影響を及ぼしております。最近は日本においても四象医学に関する書籍が発刊され交流が深まっております。

第二次世界大戦の終了に伴い、1945年植民地解放後に民族医学を復興させようと韓医師たちの努力は継続しました。東洋医学会の創立、韓医学教育機関である東洋大学館の設立など、韓医学復興のための基礎作業が行われました。特に1951年には国会で韓医師制度導入に関する案件を通過させ、韓医師制度が誕生することになりました。韓医師制度の導入により、大韓韓医師協會が1953年に創立され、また東洋医学大学などにより学術発展の気運が高まり、この大学は現在の慶熙大学に発展しております(圖8)。

특히 이 시기 1800년대 후반, 1890년부터 1900년까지는 사상체질의학이라는 새로운 의학개념들이 정립되고, 한국만의 독특한 의학이론으로서 발전하고, 그것이 일본에서도 책으로 발간되었습니다.

1945년 해방이 된 후에 민족의학을 부흥시키려는 한의사들의 노력이 계속 이어져, 한의사회와 같은 한의사 단체들이 만들어졌고, 한의학 교육, 또 동양의학회 창립, 한의학 기관인 동양의학관의 한의학 부흥이 기초작업으로서 이루어졌습니다.

圖10

한의사 제도의 창립을 위한 노력으로 많은 한의사들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여서 한의사 제도가 도입되고, 대한한의학회가 1953년에 만들어지고, 동양의학관이 서울한외과대학으로 나중에 동양의학대학으로 발전을 한 것이 지금 현재 경희대학교의 전신입니다(圖8).

大韓韓医学会は、スライドでは1955年となっておりますが、最近の資料では1953年に創立されたとされております。また1963年に会報が創刊号として出版され、1966年、1974年にかけて、学術的な作業や補習教育を行っております。国際活動としましては、1973年に第3回国際鍼灸学術大会を開催しております。またスライドでは示しておりませんが、1993年には韓中学術大会を行っており、1年交互の学術大会が現在も行われております。また、2006年、2008年の交流を経まして、2009年に日本東洋医学会との学術交流協定を結ぶまでに至りました(圖9)。

그 이후, 1955년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얻은 자료에 의하면, 1953년에 대한한의학회가 창립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1963년에 대한한의학 회보가 창간되었고, 1966년 “동의보감” 번역사업과 한의학 용어제정 사업 등이 시행되었고, 1974년 이후 전국 한의학 학술대회를 개최해 오면서 전국의 한의사들을 상대로 매년 보수교육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활동으로서는 1973년에 제3차 국제침구학술대회가 한국에서 개최되었고, 1993년에 한중학술대회라는 중국과 한국의 학술대회가 매년 중국과 한국을 오고가면서 개최되기 시작했고, 2006년에 중국 중세의학 학회와 교류협정, 그리고 2008년 대만 중화중의학

협회와 교류협정, 그리고 아주 감명깊게도 2009년에 저희 대한한의학회가 일본 동양의학회와 교류협정을 맺게 되었습니다 (図9).

現在, 韓国には11校の韓医科大学と1校の韓医学専門大学院により, 約3500名の学生が教育を受けています。韓医科大学を卒業し, 韓医師として活動している人数が約1万8000名に達しています。韓医学の研究は, これら12校の韓医科大学と韓医学専門大学院を中心に実施されております。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図10)。

현재 한국에는 11 개의 한의과대학과 1 개의 한의학전문대학원에서 3,500 명 정도의 학생들이 교육을 받고 있고, 한의과대학을 거쳐 한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인원이 약 18,000 명 정도에 달하고 있으며, 한의학 연구는 이러한 12 개에 달하는 대학과 전문대학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図10).

金成俊 韓国の伝統医学である韓医学を理解する上で, 大変貴重な発表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それでは引き続きまして, 日本東洋医学会会長石野尚吾先生, 宜しく申し上げます。

한국의 전통의학인 한의학을 이해하기 위하여 아주 귀중한 발표를 감사합니다. 그럼 계속해서 일본동양의학회회장 이시노쇼고선생 부탁드립니다.

漢方医学の潮流

石野 尚吾

(社) 日本東洋医学会会長

昭和大学医学部第一生理学

I はじめに

ただいまご紹介いただきました石野です。先ほど金成俊先生からご紹介がありましたように, 本企画は特別企画3「日韓伝統医学の潮流」ということで, 今年3月29日に大韓韓医学会と(社)日本東洋医学会が学術交流の調印式を行い, 毎年学術交流を実施することが合意されたことを受けての特別企画です。

現在, 日本における医学, 医療の主流は西洋医学です。しかし最近, 漢方医学は次第に医療の中で大きな位置を占めつつあります。漢方医学とは, 日本における日本で発展した中国の伝統医学のことです。広義には薬物療法, 湯液治療, 鍼灸, 按摩, 導引, 気功, 養生, 本草学(薬物学), 医史学などを含み, 狭義には湯液治療と鍼灸治療を指す場合が多いようです。

지금 소개받은 이시노입니다. 김성준 선생부터 소개가 있었드시 본 기획은 특별기획3「한일전통의학의 조류」로서 올해 3월 29일 대한한의학회와 일본동양의학회 학술평의의 조인식을 행하여, 매년 학술평의를 실시하는 것이 합의를 받아서의 특별기획입니다.

현재 일본에서는 의료의 주류는 서양의학입니다。그러나 최근 한방의학은 의료 중에서 큰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한방의학이란 일본에 있어서 중국의 전통의학입니다。넓은 뜻으로는 약물요법, 탕액치료, 침구, 안마, 도인, 기공, 양생, 본초학(약물학), 의사학 등을 포함하며 좁은 뜻으로는 침구치료와 탕액치료를 가리키는 경우가 많습니다。

II 日本独自の医学の萌芽

平安時代にわが国独自の文化意識が萌芽し, 医学書が編纂されるようになり, 西暦984年に日本最古の医書, 多くの中国からの輸入医書の中から日本の風土, 日本人の思考が反映されている内容の『医心方』が丹波康頼により完成いたしました (図1)。

その他日本の医書として, 僧・梶原性全は『頓医

図 1

図 2

図 3

図 4

抄』、『万安方』を編纂し、その後、禅僧・有林は仮名交じりの『福田方』を著しました。わが国への本格的な医学の導入は、室町時代、明に留学した田代三喜とその弟子曲直瀬道三と考えられています。室町末期から安土桃山時代の著明な医師、曲直瀬道三です(図2)。

(주: 고유명사는 일본말로 표시). 헤이안 시대에 우리나라에서는 독자적인 문화의 싹이 시작되어 의학서가 편찬되었습니다. 984년에 일본 최고의 의서, 많은 中国輸入医書중에서 일본풍토, 일본사가 반영되어 있는『医心方(의심방)』이 丹波康頼(단바 야스요리)에 의해서 완성되었습니다(図1). 그외 日本医書로서 僧・梶原性全(가지와라 세이젠)는『頓医抄(동이쇼)』、『万安方(만안포)』를 編纂하고, 그후 禅僧・有林(유린)은 仮名가 섞인『福田方(후쿠덴호)』를 저술 했습니다.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의학이 도입된 것은 무로마치 시대에 명나라에 유학한 田代三喜(다시로 산키)와 그의 제자인 曲直瀬道三(마나세 도잔)이라고 생각됩니다. 室町末期에서 安土桃山時代の著명한 医師、曲直瀬道三입니다(図2).

Ⅲ 日本漢方の特徴

漢方は日本の伝統医学で、伝統を無視して論ずる

ことはできません。日本漢方の特徴は、学より術を重視していることです。漢方医学は、その基は古代中国に源を発し、わが国では特に江戸時代に日本化された医学です。例えば観念的な議論を廃し、実証主義的な立場を主張、腹診法などを発展させたことなどであります(図3)。

한방은 일본의 전통의학이므로, 전통을 무시하면서 논할 수는 없습니다. 일본 한방의 특징은 학보다는 술을 중시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에도시대 때에 일본화된 의학체계이며, 예를 들어, 관념적인 이론을 폐쇄하고 실질적인 입장을 주장하며, 복진법을 발전시킨 것이 특징입니다(図3).

室町時代、明に留学した田代三喜などにより、当時の最新の明医学が盛んに導入されました。田代三喜の弟子、曲直瀬道三は、宋・金・元・明の医書を独自の手法で整理し、『啓迪集』をはじめ、多くの医書を著しました。この学派を「後世方派」と呼んでいます。

図 5

17世紀後半から、日本の漢方は『傷寒論』医学を最大評価する流派によって占められるようになりました。代表的な人物は吉益東洞で、東洞は『傷寒論』の文章から中国自然哲学の概念を否定排除し、『類聚方』、『薬徴』を編述しました。この時点で日本的な「証」の概念、主義が形成されたといわれています。東洞の跡を継いだ南涯は、「気血水」説による病理と治療の説明を行い、その医説もまた現代漢方の強い背景を成しています。この学派を「古方派」といいます。これに対して、臨床に役立つものは、流派にこだわらず柔軟に対応し理論より有用性を重んじ、臨床を第一とする立場の流派、「折衷派」が生まれました。代表的な人物は和田東郭などで、浅田宗伯も折衷派の一人です。和田東郭は、「一切の病氣は古方を主とし、その不足を後世方で補うべし」と唱えました。

オランダ医学が伝来すると、華岡青洲らは蘭学との折衷を図りました。華岡青洲は吉益南涯に古方を、またさらにオランダ医学を学び、経口麻酔剤、麻沸散により、世界で初めて乳癌の手術を行いました。浅田宗伯については、また後ほど述べます(図4)。

무로마치 시대에는 명나라에 유학을 한 다시로 산키 등에 의하여 최신의 명나라 의학이 도입되었습니다. 다시로 산키의 제자인 마나세 도산은, 宋・金・元・明의 医書を 独自の 手法로 整理하고、『啓迪集(게이데이키슈)』를 비롯하여, 많은 医書を 저술 했습니다. 그 학파를 ‘後世方派(후세방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17세기 후반부터 일본의 한방은『傷寒論(상한론)』을 최대 평가하는 유파가 중심이 되어 왔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은 吉益東洞(요시마쓰 도

図 6

도)이며, 요시마쓰 도도는 상한론의 문장부터 중국자연철학 개념을 부정하고,『類聚方(류이쥬호)』,『薬徴(야쿠초)』등의 책을 출판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일본적인「증」의 개념, 주의가 형성 되었다고 합니다. 요시마쓰 도도의 제자이며 아들인 吉益南涯(요시마쓰 난가이)는 또한 ‘気血水(기혈수)’ 설을 병리와 치료에 활용하는 것을 설명하여, 이 医説도 또한 現代漢方에서 강한 배경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 학파를 ‘古方派(고방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이런 두 가지 파에 대해서 임상적으로 응용되는 것은 유파에 관계없이 유연하게 대응하는 ‘折衷派(절충파)’입니다. 대표적인 인물은 和田東郭(와다 도카쿠) 등이며 浅田宗伯(아사다 소우하쿠)도 절충파의 한 사람입니다. 和田東郭은「모든 병은 古方を 주로하고, 그 不足을 後世方으로 補할 것」이라고 주장 했습니다.

화란에서 의학이 전래되었으며, 華岡青洲(하나오카 세이슈) 등은 蘭学(화란의학)과의 절충을 도모했습니다. 또 하나오카 세이슈는 요시마쓰 난가이한테서 고방파 화란 의학을 배우고, 경구마취제 麻沸散(마불산)에 의해 세계에서 처음으로 유암 수술을 했습니다. 아사다 소우하쿠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圖4).

古方派의 1人である後藤良山は,「一氣留滯説」を提唱し,百病は一氣の留滯により生ずると説きました。

山脇東洋は後藤良山の弟子で,わが国で最初に人体解剖を行い,『蔵志』を著しました.そして中国の『黄帝内経素問』の学説に出ている解剖と違うということを,実証主義の精神で著し,それを批判し

図7

ました。吉益東洞は40歳を過ぎて山脇東洋に認められ、薬はすべて毒である、病気はすべて一つの毒によって起こる、毒をもって毒を制するという非常に過激な説を唱え、治病を説きました(図5)。日本に輸入された中国医学は漢方となり、時代時代の影響を受けて本質を伝えながら明治へ向かうのです(図6)。

고방과의 사람들인데, 後藤艮山(고토 곤잔)이라는 사람은 ‘일기유체설’을 주장하고, 모든 병은 하나의 기의 유체에 의해 생긴다고 주장했습니다.

山脇東洋(야마와키 도우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은 고토 곤잔의 제자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人体解剖를 행하여, 『蔵志(장지)』를 저술하고, 내경의 해부와 다르므로 실증주의 정신으로 내경학설을 비판했습니다. 요시마쓰 도도는 40세를 넘어서 야마가키 도우요가 인정한 사람입니다. 약이라는 것은 모든 것이 독이라는 것입니다. 병은 모든 것이 하나의 독으로 생긴다. 그러니까 그 독을, 병의 독을 약물의 독으로 억제한다는 아주 과격한 주장을 하며, 치료를 하라고 했습니다(図5). 日本に輸入된 中国医学이 漢方으로 되며, 時代時代の 影響을 받아서 本質을 전달 하면서 明治로 향합니다(図6).

Ⅳ 漢方医学の衰退

明治時代の富国強兵に伴う西洋医学一辺倒の風潮の中で、漢方は抹殺される運命をたどりしました。19世紀後半から、漢方は次第に衰退し、西洋医学が主流となりました。ことに1883年に医師国家試験の内容が西洋医学のみとなり、1895年、国会第八議会で漢方医学存続願は否決されました。

図8

浅井国幹は、尾張で10代続いた漢方名医ですが、明治33年、祖先の墓前で「墓に告げるの文」を捧げ、その心情を訴えました。

明治政府は漢方医学廃絶の方針を決定しました。しかし、西洋医学を学んだ上で、漢方の臨床・研究は自由でした。漢方医学の治療学としての優秀性を強調した和田啓十郎の『医界之鉄椎』(1910)、湯本求真の『皇漢医学』(1927)が引き金となり、再び脚光を浴びるようになりました。第二次大戦前後を通じて、漢方にかかわる研究団体、教育機関などが組織され、漢方復興の努力が精力的に行われました(図7, 8)。

명치시대 이후 富国強兵으로 서양의학 중심 속에서 한방은 말살될 운명이었습니다. 19세기 후반부터 한방은 점차 쇠퇴하면서 서양의학이 주류가 되었습니다. 1883년에 의사국가시험의 모든 내용이 서양의학으로 되고, 1895년 국회 제8회회에서 한방의학 존속 신청이 부결되었습니다.

浅井国幹(아자이 곳칸), 이 가계는 尾張(현名古屋) 지방에서 10대 이어간 유명한 한의사 집안이지만, 명치 33년에 조상의 묘 앞에서, 뜻을 이루지 못하여, 묘에 고하는 글을 써서, 조상의 묘 앞에서 그 미안한 심정을 호소했습니다. 명치정부는 한방의학 폐절 방침을 결정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학을 배운 후에 하는 한방 연구는 자유입니다. 그 중에서 한방의학의 치료학으로서의 우수성을 강조한 和田啓十郎(와다 게이주로)의『医界之鉄椎(이카이노텃즈이)』(1910), 湯本求真(유모토 규신)의『皇漢医学(고우칸이가쿠)』(1927)가 하나의 계기가 되어 다시 각광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2차대전 전후에 한방에 관한 연구단체

図9

図10

図11

図12

및 교육기관, 한방부흥의 노력이 정력적으로 행해졌습니다 (図7,8).

V 漢方医学の復興

明治前期の漢方界において著しい活躍をした浅田宗伯の臨床家としての業績は、今日学ぶ点が多々あります。臨床医として名声を得た浅田宗伯は将軍家茂を診察し、漢方界の巨頭として、当時、反漢方を旗印とした石黒忠恵らの西洋医学派の勢力と対峙しました。また『勿誤薬室方函口訣』を著し、これは現代日本漢方処方の直接の出典となっております (図9)。

명치 전기의 한방계에 있어서 큰 활약을 한 사람인 아사다 소우하쿠의 임상가로서의 업적은 지금도 배울 점이 많습니다. 임상의사로서 명성을 얻은 아사다 소우하쿠는 그 당시의 장군인 家茂 (이에시게) 를 진찰했습니다. 또한 한방계의 중심으로 그 당시 한방에 반대하는 石黒忠恵 (이시구로 다다노리) 라는 西洋医学派 세력파도 대결했습니다. 아사다 소우하쿠의 책 『勿誤薬室方函口訣』

(후쓰고야쿠시츠호칸쿠케쓰)』은 현대 일본 한방 처방의 직접적인 출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図9).

漢方医学復興のきざしは、特に中山忠直の『日本および日本人』の中での漢方医学復興論に刺激された和田啓十郎の『医界之鉄椎』, その後の『皇漢医学』などが出版されてからと聞いております。偕行学苑, 拓殖大学講座として1936年から漢方医学の講座が行われ, 1938年に東亜医学協会が設立され, その直後に出版されたのが『漢方診療の実際』(1941)です (図10)。

漢方医学復興의 움직임은 특히 中山忠直 (나카야마 다다나오) 의 『日本및日本人』에서 한방의학 부흥론에 자극 받은 和田啓十郎의 『医界之鉄椎』, 그 이후 『皇漢医学』 등이 出版되어서라고 합니다. 偕行学苑, 拓殖大学講座로서 1936 년 시작되어, 1938 년 東亜医学協会가 설립되고, 그 당시 출판된 책이 『漢方診療의 実際』 (1941) 입니다 (図10).

湯本求真と偕行学苑の7人の侍といわれた講師陣です。前列右より矢数道明, 弟の矢数有道, 大塚敬

図13

節，後列右より清水藤太郎，木村長久，石原保秀，柳谷素霊の各先生方です（図11）。

또 그 이후에 일본한방계에서 활약하던 7 명의 선생님입니다만, 이 분들은 한방계에서 ‘시치닌의 사무라이’ 라는 이름을 받고 있습니다. 전열 오른쪽부터, 矢数道明 (야카즈 도우메이), 동생인 矢数有道 (야카즈 유우도), 大塚敬節 (오즈카 게이세츠), 후열 오른쪽부터 清水藤太郎 (시미주 토우타로), 木村長久 (키무라 나가히사), 石原保秀 (이시하라 야수히데), 柳谷素霊 (야나기야 소레이) 선생님들입니다 (圖 11)。

昭和漢方を支えた巨頭です。奥田謙蔵，細野史郎，大塚敬節，矢数道明の先生方で，西洋医学の医師であり，漢方医学を復興させることに尽力した先生方です。（図12）。

明治政府の行った，医師の資格の一元化の結果として，西洋医学を修めた医師が診療に漢方薬を用い，鍼灸治療ができる，世界でも希有な国となり，21世紀に入り，WHO はじめ多くの国々から，パラダイムの異なる二つの医学の総合モデルとして注目を集めているのは，歴史の逆説とでも申すべきでしょうか。

그리고 그 이후에 쇼와 한방을 중심으로 아주 큰 일을 하신 선생님이십니다. 奥田謙蔵 (오쿠다 겐조) 선생님, 細野史郎 (호소노 시로) 선생님, 大塚敬節 선생님, 矢数道明 선생님이시며 서양의학의 의사이면서 한방의학을 부흥시키기 위하여 노력한 선생님들입니다 (圖 12)。

의사자격의 일원화 결과로서 서양의학을 배운 의사가 치료에 한방약을 사용할 수 있는 세계에서 아주 드문 나라가 되어, 21 세기에 들어 WHO 등

図14

많은 나라로부터 패러다임이 다른 두 가지 의학의 종합 모델로서 주목을 받고 있는 것은 역사의 역설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VI 日本東洋医学会設立

日本東洋医学会設立について，第二次世界大戦に敗戦後，西洋医学の空前の発展にもかかわらず，1949年，全国に離散していた漢方の研究者を糾合すべく，漢方をきちんとした学問にして盛んにするためには，どうしても学会を作らなければならないという理念の下，日本医学会分科会加盟を目標の一つとして，1950年に日本東洋医学会が設立されました。

1970年代には，大学や公的研究機関に漢方の研究・診療部門が開設され，1976年には医療用漢方製剤，いわゆるエキス剤が保険薬価に収載され，1991年長年の願望であった日本医学会には87番目に加盟が許されました。

2001年，医学教育のコアカリキュラムの中に「和漢薬を概説できる」ということで，医学・薬学教育に漢方薬が入りました。2005年に広告のできる漢方専門医が認められ，2008年にはその標榜の使用が認められました（図13）。

일본동양의학회의 설립 이후의 흐름입니다. 제 2 차 세계대전 후에 서양의학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1949 년에 전국에서 흩어져 있었던 한방 연구자들을 하나로 모으고, 한방을 올바른 학문으로 활발히 발전시키기 위하여 학회를 만들어야 된다는 이념아래 일본의학회분과회가명을 하나의 목표로, 1950 년에 일본동양의학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1970 년대부터는 대학이나 공적 연구기관

에서 한방의 연구나 진료부문이 개설되었습니다. 1976년에는 의료용 한방제제가 약가 기준으로 보험가로 사용되게 되었습니다. 1991년에는 아주 오랜 원망이었던 일본의학회에 87 번째로 가맹이 되었습니다.

또 2001년에는 의학교육의 코어 커리큘럼에 ‘화한약을 개설할 수 있다’는 말이 들어가서 의학대학에서 한방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2005년 한방전문의라는 전문의 제도가 인정되고, 또 2008년에 한방전문의 광고가 인가되었습니다 (圖 13).

VIIまとめ

漢方はわが国の伝統医学であり, 古代中国医学を日本化したものです。その特徴は, 学より術を重視, 親試実験, 腹証, 気血水理論の確立, また口訣です。そして西洋医学体系における漢方医学の確立ということが, 日本漢方の大事な使命です (圖14)。ご清聴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

한방은 우리나라 전통의학으로, 고대 중국 의학을 일본화한 것입니다. 특징으로서는 학보다 술을 중시, 친시실험, 복증, 기혈수이론의 확립, 또 구결입니다. 그리고 서양의학 체계에 있어서 한방 의학의 확립이 일본한방의 중요한 사명입니다 (圖14). 대단히 감사합니다.

金成俊 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今回の報告を通じて, 韓国と日本の伝統医学への理解が深まり, 両国の交流がますます盛んになることを願っております。今後両学会がますます良好な関係を保ち発展していくことを願って, 特別企画3「日韓伝統医学の潮流」を終わらせていただきます。

감사합니다. 이번 보고를 통하여 한국과 일본의 전통 의학을 깊이 이해하여 양국의 교류가 더욱 성행하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양학회가 양호한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하기를 바라며, 특별기획 3「한일 전통 의학의 조류」를 마치겠습니다.